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

조명주** · 임견주*** · 최은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성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An, Lim, Kim, Kim, & Song, 2015; Kim, Lee, Kim, & Kang, 2012; Lee & Kweon, 2013),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가치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들의 신체발육 속도가 빨라지고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되고 무분별한 성 문화와 성 정보를 접하게 되는 아동의 연령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학령전기부터의 성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Lee & Kim, 2017; Kim et al., 2012).

만 3세 이후부터 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인 학령전기 아동은 Freud의 성심리 발달에서 남근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성기로 옮겨지기 때문에 성기의 존재를 자각하고 성욕도 보이고, 본인의

신체상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를 탐구하는 시기이다(Synn et al., 2013). 학령전기에 형성된 성 인식은 개인의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평생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성교육은 건강한 자아개념의 형성과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다(Lee & Kim, 2017).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성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Lee & Kim, 2017), 부모와 자녀간의 성 의사소통은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 차이, 성 행동과 가치 등의 성 사회화의 발달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Jerman & Constantine, 2010). 따라서 성교육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한다(Ballard & Gross, 2009; Lee & Kim, 2017). 부모들은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를 희망하지만(Ballard & Gross, 2009; 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 Slater, & Carroll, 2007),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와의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녀 성교육

* 본 연구는 2016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시행된 연구임.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teresia99@hanmail.net)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Received: 3 March 2018 • Revised: 16 May 2018 • Accepted: 6 June 2018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im, Kyoun-Joo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36133, #77 Daehak-ro, Yeongju, Gyeongsangbuk-do, Korea

Tel: 82-54-630-5149 Fax: 82-54-630-5143 E-mail: teresia99@hanmail.net

을 주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Ballard & Gross, 2009).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의 확신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일의 성취나 활동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Kim, Kang, & Jeong, 2012).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자녀 성교육과 관련된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성교육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주며(Jeon, 2012), 자녀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Lee & Kim, 2017; Lee & Oh, 2016). 이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올바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An et al., 2015). 학령전기 아동의 절반 이상이 성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임에도(Jin & Park, 2011), 부모는 성지식의 부족으로 자녀와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며, 이에 절반 이상의 부모가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e, Slater, & Carroll, 2007; Kim et al., 2013). 따라서 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실시하거나 성적 행동을 자제시키는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e, Slater, & Carroll, 2007; Kim et al., 2013). 또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아(Kim et al., 2013) 자녀의 성적 호기심과 아동의 성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allard & Gross, 2009; Jin & Park, 2011).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헌신, 신뢰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인성 및 인격

교육이다(Kim et al., 2012; Yoo & Kim, 2017). 또한, 학령전기 자녀는 특히 부모를 통해 이성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성역할 발달단계이다(Lee & Lee, 2011).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생활 안에서 성역할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Jin & Park, 2011). 부부가 밀접하고 가까운 느낌을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애정적, 성적, 헌신적 및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인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Lee, 1995). 부부의 결속도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접 자녀에게 성의식과 행동을 포함한 성 가치관 형성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Jin & Park, 2011; Kim & Lee, 2005). 이에 부부친밀감이 부모가 자녀 성교육을 유능하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상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에 자녀 성교육에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높으며, 성에 대한 의사소통 횟수도 아버지에게 비해 많으나(Jin & Park, 2011; Kim et al., 2013) 자녀의 성교육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Jerman & Constantine, 2010; Kim et al., 2013; Lee & Oh, 2016). 바람직한 가정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먼저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를 개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효능감을 길러야 한다(Jerman & Constantine, 2010). 외국의 선행 연구들(Ballard & Gross, 2009; Jerman & Constantine, 2010)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 부모 성교육 경험 등과 같은 성 건강 경력과 부모의 나이, 교육 및 경제 수준, 자녀의 성별과 같은 가족 구조와 형태 등이 가정에서의 성 의사소통 또는 성교육의 수준과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성지식, 성교육 인식 및 요구도 조사(Kim et al., 2013)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비교(Lee & Oh, 2016) 연구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Lee & Kim, 2017; Lee & Kweon, 2013) 4편 뿐이며,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이에 아동이 긍정적인 성 지식과 가치관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의 자녀 성교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부부친밀감과 성지식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밀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한다.
-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밀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밀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 4곳에 재원 중인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학령전기 아동이 급·만성 질환이 없고 해당 아동이 정상발달을 하는 자, 남편과 별거·이혼 또는 사별하지 않은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Cohen (1988)에 의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유의수준 (α) .05,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1- β) .90, 독립변수 18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는 183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 189명은 통계분석에 충분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과 어머니의 성건강 경력 4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머니의 나이와 교육 수준, 가정의 월 소득, 맞벌이 여부, 주말 부부 여부, 자녀의 수, 학령전기 아동의 순위, 학령전기 아동의 나이, 아동의 성별과 같은 가족의 구조와 형태 요인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성건강 경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 어머니의 부모 성교육 경험 여부,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를 포함한다.

2)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2013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출간한 성교육 지침서를 기초로 Kim (2008)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Kweon (2013)이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녀에게 신체적인 성(6문항)과 사회적인 성(4문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Lee와 Kweon (201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인 Cronbach's α 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의 관계성 개념을 측정하며,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상대의 결함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간의 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로 정의된다(Lee, 1995). 본 연구에서는 Lee (1995)가 개발한 부부친밀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인지적 친밀감' 5문항과 '정서적 친밀감' 5문항 및 '성적 친밀감' 5문항으로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친밀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도구의 Cronbach's α 는 Lee (1995)의 연구에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성지식

성지식은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에 관한 국내의 문헌을 토대로 Kwak (2000)이 개발한 성지식 도구 50문항 중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지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선별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교수 2명, 석사 이상의 성교육 전문가 2명,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 2명, 총 6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0.8 이상인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에서 제외된 문항은 '여성은 질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다'와 같이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먹는 피임약은 성공률도 낮고 부작용도 심하다'와 같이 한 문장 안에 두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문항과 약물 복용, 성병 등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성지식을 측정하기에 부적당한 항목을 제외하였다. 성지식의 하위 항목은 임신과 출산, 남녀 성기, 피임, 성 반응 등 일반적인 성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맞다', '틀리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며, 채점을 통해 총점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 4곳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유치원 원장에게 협조 승인을 받고 해

당 유치원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권리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한 후 자녀의 유치원 등원 시 서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CUPIRB-2015-010)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시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으며, 대상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문 내용을 미리 제공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부친밀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으며,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파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89명 중 30세 이하가 7명(3.9%), 31-35세가 64명(35.4%), 36-40세가 70명(38.7%), 41세 이상이 40명(22.1%)이었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9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월 소득은 300-500만원이 99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77명(41.0%)이었고, 자녀의 수는 2명이 114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전기 아동의 순위가 첫째 아이인 경우가 125명(66.5%)이었으며, 학령전기 아동의 나이는 4세가 71명(37.7%)이

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성별은 여자 아이가 96명(50.8%)이었고, 적절한 자녀 성교육 시기는 학령전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98명(52.1%)이었으며, 어머니의 부모 성교육 경험은 148명(78.3%)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9명(68.3%)이었으며,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명(50.3%)이었다(Table 1).

Table 1.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 Variables | Categories | n(%) | Parental efficacy | |
|---|-------------------------------------|-----------|-------------------|-----------|
| | | | Mean±SD | t / F (p) |
| Age of mother (yr) | < 31 | 7(3.9) | 4.00 ± 0.47 | 2.36 |
| | 31-35 | 64(35.4) | 3.45 ± 0.61 | (.073) |
| | 36-40 | 70(38.7) | 3.61 ± 0.73 | |
| | > 40 | 40(22.1) | 3.71 ± 0.64 | |
| Education level † | High school ^a | 37(19.6) | 3.32 ± 0.53 | 5.00 |
| | College ^b | 61(32.3) | 3.45 ± 0.70 | (.002) |
| | University ^c | 79(41.8) | 3.73 ± 0.66 | c)a |
| | Graduate school ^d | 12(6.3) | 3.88 ± 0.66 | |
| Monthly income (10,000won)† | < 300 ^a | 45(23.8) | 3.38 ± 0.67 | 6.60 |
| | 300-499 ^b | 99(52.4) | 3.53 ± 0.64 | (.002) |
| | ≥ 500 ^c | 45(23.8) | 3.86 ± 0.67 | c)a,b |
| Dual-career family | Yes | 77(41.0) | 3.68 ± 0.74 | 1.81 |
| | No | 111(59.0) | 3.50 ± 0.62 | (.072) |
| Commuter couple | Yes | 8(4.2) | 3.28 ± 0.47 | -1.27 |
| | No | 181(95.8) | 3.58 ± 0.68 | (.205) |
| Number of children | 1 | 31(16.4) | 3.78 ± 0.57 | 1.87 |
| | ≥2 | 158(83.6) | 3.53 ± 0.69 | (.063) |
| Grade of preschooler child | 1 | 125(66.5) | 3.59 ± 0.68 | 0.42 |
| | ≥2 | 63(33.5) | 3.54 ± 0.68 | (.678) |
| Age of preschooler child (yr) | 4-5 | 125(66.5) | 3.61 ± 0.72 | 0.97 |
| | 6-7 | 63(33.5) | 3.50 ± 0.58 | (.336) |
| Gender of preschooler child | M | 84(44.4) | 3.69 ± 0.67 | 2.00 |
| | F | 96(50.8) | 3.49 ± 0.66 | (.047) |
| When to start sexual education† | Toddler ^a | 22(11.7) | 3.87 ± 0.67 | 3.85 |
| | Preschool age ^b | 98(52.1) | 3.60 ± 0.66 | (.023) |
| | Over elementary school ^c | 68(36.2) | 3.43 ± 0.67 | a)c |
| Experience of parents education to teach children | Yes | 41(21.7) | 3.77 ± 0.73 | 2.16 |
| | No | 148(78.3) | 3.52 ± 0.65 | (.032) |
|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 Systematically ^a | 5(2.6) | 4.32 ± .61 | 10.04 |
| | A little ^b | 55(29.1) | 3.81 ± .57 | (.001) |
| | Never ^c | 129(68.3) | 3.44 ± .67 | a,b)c |
| Perceived sexual knowledge† | Sufficient ^a | 10(5.3) | 4.38 ± 0.58 | 18.37 |
| | Moderate ^b | 84(44.4) | 3.74 ± 0.62 | (.001) |
| | Insufficient ^c | 95(50.3) | 3.34 ± 0.62 | a)b)c |

† Missing data not included

† Scheffé test

2. 대상자의 부부친밀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부부친밀감은 최대 5점 기준으로 3.57점이었고, 성지식은 최대 30점 기준으로 24.35점이었으며,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최대 5점 기준으로 3.57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는 교육 수준($F=5.00, p=.002$), 월 소득($F=6.60, p=.002$), 자녀의 성별($t=2.00, p=.047$), 적절한 성교육 시기($F=3.85, p=.023$), 부모 성교육 여부($t=2.16, p=.032$),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F=10.04, p<.001$),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F=18.3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졸업'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낮았으며, 월 소득은 500만원 초과가 500만원 이하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적절한 성교육 시기는 유아기

라고 응답한 경우가 초등학교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충분, 보통, 부족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4. 대상자의 성지식, 부부친밀감과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부부친밀감($r=.37,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지식($r=.10, p=.167$)과는 상관이 없었다. 즉,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수준이 높았다(Table 3).

5. 대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를 예측변수로 하여 단계 입력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수인 부부친밀감은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유

Table 2. Degree of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Marital Intimacy (N=189)

| Variables | Item score | | | |
|---|--------------|------|------|-------|
| | Mean ± SD | Min | Max | Range |
|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 3.57 ± 0.67 | 1.60 | 5.00 | 1-5 |
| Sexual knowledge | 24.35 ± 2.15 | 16 | 30 | 0-30 |
| Marital Intimacy | 3.57 ± 0.53 | 2.00 | 5.00 | 1-5 |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Marital Intimacy (N=189)

| Variables | Marital intimacy | Sexual knowledge |
|---|------------------|------------------|
| | r(p) | r(p) |
| Sexual knowledge | .19 (.008) | |
|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 .37 (<.001) | .10 (.167) |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 중 교육 수준, 월 소득, 자녀의 성별, 적절한 성교육 시기, 부모 성교육 여부,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예측 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 자녀의 수는 '1명', 자녀 성별은 '여아아이', 적절한 성교육 시기는 '초등학교 이상', 부모 성교육 경험과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은 '없음',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부족'을 기준 범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공차한계 (tolerance) 범위가 0.96-1.0으로 0.1이상이었고, Durbin-Watson값은 2.02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인 VIF는 1.002-1.043으로 10 미만이었어서 투입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F 통계량은 20.43($p < .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 R^2 는 28.9%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친밀감($\beta = .32, p < .001$),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beta = .29, p < .001$),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beta = .21, p = .001$), 교육 수준($\beta = .14, p = .021$) 순 이었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

감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57점이었다. 이는 Lee와 Kim (2017)의 연구의 3.56점과 유사하였으나, Lee와 Kweon (2013)의 연구에서의 3.76점과 Lee와 Oh (2016)의 연구에서의 3.79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수준은 중상 수준으로, 부모 자녀 사이에 성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자녀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성문제의 발생 시 잘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Klein et al., 2005),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어머니의 교육 수준, 월 소득,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건강 경력'인 자녀의 성교육 시기에 대한 인식, 부모 성교육 경험,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고,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남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았던 선행연구(Jerman & Constantine, 2010)와 가정의 소득이 적을수록 성에 대해 부정적이고(Swain, Ackerman, & Ackerman, 2006),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던 선행연구(Jin & Park, 2011; Lee & Oh; 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Jerman & Constantine, 2010),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효능감이 향상되기 때문(Lee & Oh, 2016)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N=189)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Marital intimacy | .408 | .079 | .32 | 5.19 | <.001 |
| Perceived sexual knowledge (Insufficient) | .394 | .083 | .29 | 4.74 | <.001 |
|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Never) | .305 | .090 | .22 | 3.39 | .001 |
| Education level (High School) | .243 | .105 | .15 | 2.32 | .021 |

$R^2 = .31, \text{ Adjusted } R^2 = .29 \text{ F} = 20.43 \text{ } p < .001$

아이를 둔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여자아이의 경우 남자아이에 비해 아동 성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성과 관련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일찍 시작되는 것(Beckett et al., 2010)을 고려할 때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가 성학대 예방에 대한 자녀교육에 더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인 것(Walsh, Brandon, & Chiro, 2012)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성 건강 경력'인 자녀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험,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따라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성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이상에서부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13)에서 성 문제와 관련된 가정에서의 교육이 지연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성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성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자녀의 성적 행동을 자제시키는데 치중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모 성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았으며, 이는 Lee와 Kweon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78.3%가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3%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73%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선행연구(Kim & Lee, 2005) 결과와 유사하다. 많은 부모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성과 관련된 대화보다는 부모가 제공한 성과 관련된 책을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Ballard & Gross, 2009). 이는 따뜻한 감정이 전해지지 않아 안락함을 느낄 수 없으며, 학교 교육 또한 성의 신체적 측

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할 때(Ballard & Gross, 2009) 자녀의 성장발달단계를 잘 알고 있고 자녀의 역할 모델이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함(Lee & Oh, 2016)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스스로 성지식 정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 밖에 되지 않았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가 성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지한 경우가 8.6%,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3%이었던 선행연구(Ballard & Gross, 2009; Kim et al., 201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이거나, 소득이 낮은 집단 및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어머니의 '성 건강 경력' 면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낮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부부친밀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지식 정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즉,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Kim, 2016)에서 부부친밀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지식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관련이 없었던 결과는 실제적인 성지식이 자녀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Lee & Oh (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친밀감,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 교육 수준이었고, 설명력은 28.9%이었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부부친밀감이었다.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모역할 수행을 증가시켜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Jang, Chung, & Lee, 2011).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 준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향상되고 자녀의 성태도와 행동을 포함한 성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Lee & Kim, 2017)을 고려할 때,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두 번째 영향 요인은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실제 성 지식보다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가 성 지식에 대한 자신감만 가지고 잘못된 성지식으로 자녀 성교육에 임할 경우 자녀에게 부적절한 성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Lee & Oh, 2016), 정확한 성지식과 성교육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령전기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한다(Lee & Kweon, 2013; Lee & Kim, 201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일반적 성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하였으므로 학령전기 아동의 성교육을 위한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학령전기 아동의 성교육 내용을 고려한 성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요구되며, 부모가 지각한 성지식 정도와 실제 성지식 정도를 비교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세번째 영향 요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었다. 이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보고한 Wakley (2011)의 연구 결과와 자신의 부모들과 어린 시절 성학대 예방에 대하여 논의를 했던 부모들이 자녀들과 성학대 예방 교육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Chen과 Chen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부모들의 성지식 정도와 자녀와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할 때의 편안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기 때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 자녀관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자녀에게 세대 간 전수를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돌봄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Jang et al., 2011)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효과적인 성교육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효능감의 네번째 영향 요인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었다.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에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부모 자녀 간 성 의사소통에 부모의 교육 수준은 관련이 없다고 한 Pluhar, Dilorio와 McCarty (2008)의 연구와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관계가 없다고 한 Lee와 Oh (2016)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Yoo & Kim, 2017)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에 비해 자녀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으나,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므로 자신의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성지식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 어머니의 교육 수준, 월 소득, 자녀 성별과, 어머니의 '성 건강 경력'인 자녀의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 부모 성교육 경험,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성교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친밀감,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어머니의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에 국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아버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시 단순한 성지식의 향상만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교육 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고, 실제 성지식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에 학령전기 아동의 성교육 내용을 고려한 성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요구되며, 부모가 지각한 성지식 정도와 실제 성지식 정도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신체적인 성지식 및 기술 습득에만 국한된 부모 성교육보다는 부부친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관계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낮을 수 있는 취약집단의 부모들을 파악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교육 기회의 증대가 요구된다.

References

An, Y. H., Lim, Y. M., Kim, K. Y., Kim, K. K.,

& Song, H. Y. (2015). Impact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self-efficacy on sexual autonom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a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1), 90-101.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1.90>

Ballard, S. M., & Gross, K. H. (2009). Exploring parental perspectives on parent-child sexual communication. *American Journal of Sexuality Education*, 4(1), 40-57. <http://dx.doi.org/10.1080/15546120902733141>

Beckett, M. K., Elliott, M. N., Martino, S., Danouse, D. E., Corona, R., Klein, D. J., & Schuster, M. A. (2010). Timing of parent and child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relative to children's sexual behaviors. *Pediatrics*, 125(1), 34-42. <http://dx.doi.org/10.1542/peds.2009-0806>

Chen, J. Q., & Chen, D. G. (2005). Awareness of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mong parents of grade 3 elementary school pupils in Fuxin City, China. *Health Education Research*, 20(5), 540-547. <http://dx.doi.org/10.1093/her/cyh012>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onstantine, N. A., Jerman, P., & Huang, A. X. (2007a). California parents' preferences and beliefs regarding school-based sex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9(3), 167-175. <http://dx.doi.org/10.1363/3916707>

Constantine, N. A., Slater, J., & Carroll, J. (2007b). Motivational aspects of community support for school-based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Sex Education*, 7(4), 421-439. <http://dx.doi.org/10.1080/1468107701636002>

Jang, S. W., Chung, H. J., & Lee, J. Y.

- (2011).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93-111.
- Jerman, P., & Constantine, N. A. (2010).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bout sex: a representative statewide analysi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9(10), 1164-1174. <http://dx.doi.org/10.1007/s10964-010-9546-1>.
- Jeon, B. Y. (2012).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ttitude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f female immigrated by marriag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4(2), 15-31.
- Jin, H. S., & Park, H. R. (2011). Sexual knowledge and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sex education among parents of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3), 198-205.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3.198>
- Kwak, N. J. (2000). *Sexual attitude, life and knowledge of sex for mentally ill: rehabilitation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D. Y., Kim, M. J., Kim, Y. J., Bang, Y. R., Son, Y. H., Yoon, J. H., Cho, A. R., Jo, E. M., Choi, J. H., & Hta, J. B. (2013). Sexual knowledge, sex education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and sex education demands among parents of preschoolers.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7, 43-62.
- Kim, K. W., Kang, K. H., & Jeong, G. H.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51>
- Kim, M. J. (2016). The influence of value of children, marital intimacy, perception of childbirth, co-parenting on parental satisfaction in women with a Child.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5), 1329-1338.
- Kim, S. J., Lee, J. E., Kim, S. H., & Kang, K. A. (2012).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on sex knowledge and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389-403.
- Kim, Y. S. (2008). *Effects of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the high grades elementary school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Y. J., & Lee, C. S.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exual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250-268.
- Klein, J. D., Sabaratnam, P., Pzaos, B., Auerbach, M. M., Havens, C. G., & Brach, M. J. (2005). Evaluation of the parents as primary sexuality educators program.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3), 94-99.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05.05.004>
- Lee, E. K., & Kim, Y. B.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s analysis of a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Women's Studies*, 27(1), 143-182.
- Lee, E. M., & Kweon, Y. R. (2013). Effects of a maternal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3), 370-378.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370>
- Lee, E. M., & Oh, Y. J. (2016). Sexual

-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and parent efficacy among parents of preschool chil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141-150. <http://dx.doi.org/10.15207/JKCS.2016.7.6.141>
- Lee, K. H. (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4), 235-249.
- Lee, Y. H., & Lee, Y. J. (2011).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f parent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marital stabi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1), 43-58.
- Pluhar, E. I., Dilorio, C. K., & McCarty, F. (2008). Correlates of sexuality communication among mothers and 6-12-year-old childre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4(3), 283-290. <http://dx.doi.org/10.1111/j.1365-2214.2007.00807.x>.
- Synn, M. H., Seo, E. H., Song, S. J., Kim, E. K., Won, Y. S., Nho, W. K. Kim, J. M., Kang, S. Y., & Leem, H. Y.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Swain C. R., Ackerman, L. K., & Ackerman, M. A. (2006).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ntraceptive beliefs on parent-teen sexual communications: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6), 753.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05.08.015>.
- Yoo, H. J., & Kim M. S.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awareness of teacher and parents' sex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the factors on the necessity, and the differences in factors on the necessity, and the differences in demanded education timing.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36(1), 71-108.
- Wakley, G. (2011). Helping parents with sex education. *The Journal of Family Health Care*, 21(2), 30-33.
- Walsh, K., Brandon, L., & Chiro, L.(2012). Mother- child communication about sexual abuse preven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1(4), 399-421. <http://dx.doi.org/10.1080/10538712.2012.675424>

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f Marital Intimacy and Sexual Knowledge on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Jo, Myoung-Ju (Assistant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Lim, Kyouun-J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Choi, Eun Joung (Associate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descriptive study that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Method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189 mothers who had preschoolers in four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June to August, 2015. **Results:** The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were marital intimacy ($\beta=.32, p<.001$), the degree of perceived sexual knowledge ($\beta=.29, p<.001$),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beta=.21, p=.001$), and educational level ($\beta=.14, p=.021$); the explanatory power was 28.9%. **Conclus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were marital intimacy, subjective sexual knowledge,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and the educational level. In developing a sex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preschooler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that can enhance marital intim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fferentiated mother sex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areer in sexual health.

Key words : Sex education, Mothers, Chil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usan Catholic University of academic research grant in 2016.